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41

JCCT 2018-8-6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과 사회변화의 상관성 -광주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Progressive culture and arts activities and social transformation

이승권*, 윤만식**

Seung-Kwon LEE*, Man-sik Yun**

요약 본 논문은 문화예술이 갖는 '기억의 재생과 잠재된 변화 욕구에 대한 민중들의 의지를 불러내는 매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였다.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사회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판단에서 이들 사이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조직화된 민중문화 혹은 민중예술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여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문화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사건에서 시작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사회변화의 지속 과정에 치열하게 참여했던 일련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그런 점에서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인들이 한국사회의 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한 바는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주요어 : 문화예술활동, 사회변화, 광주민주화운동, 민주주의, 민중

Abstract The present article focuses on the cultural arts, the role and functions of people as intermediate to carry out the revitalization of memory. Most of the basic cultural activities and events sparked from the cardinal point of the democratization of Gwangju and the interwoven relationships this created. In other words, the events leading to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have derived from democratic culture and art and they contributed to change and influence South Korea's revolutionary movements. As far as clarifying the concept of culture is concerned, the idea of culture is too wide to encompass it so we aim to narrow it down to the special events of 5.18 democratization movements which launched the national transformation of the cultural stage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rough this, the movement of popular culture and popular arts fostered the revolution of society. Moreover, the value of the 5.18 movement for democratization stems from democracy, human rights, the universal value of peace and so many efforts were made by popular artists until it became upgraded as a national commemoration day. Raising the people's awareness that culture could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is still necessary so that popular art and culture play a central role in people's lives. In order to fulfill the people's inherent hope it is necessary to promote aesthetic values and a continuous revolution in societal practices.

Key words : revolution of society,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democracy, popular art and culture

*정회원,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대학원 (교신저자)

**정회원,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교신저자)

접수일: 2018년 6월 12일, 수정완료일: 2018년 7월 19일

게재확정일: 2018년 8월 4일

Received: June 12, 2018 / Revised: July 19, 2018

Accepted: August 4, 2018

Co-author: skyfr@chosun.ac.kr, yunms52@hanmail.net

Dept. Cultural Studies, Chosun University

1. 서론

본 논문은 문화예술이 갖는 ‘기억의 재생과 잠재된 변화 욕구’에 대한 민중들의 의지를 불러내는 매개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사회변화와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이 얼마나 상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하는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이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폭제가 되었다는 판단이다. 다시 말해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조직화된 민중문화 혹은 민중예술이 대한민국의 변화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화항쟁은 처절한 패배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실패한 저항처럼 보였지만 당당하게 맞선 인권의 보루를 자처한 5월 항쟁은 그들만의 희생으로 끝나지 않았다. 무자비한 인권말살의 현장을 외면한 민중들은 부채의식을 갖게 되었고 폭력에 저항하지 못한 국민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화의 실현이라고 믿게 되었다. 윤상원은,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남아라. 그리고 훗날 역사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어야 지난 열흘 동안 광주시민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와 반민주 세력을 구분 짓는 경계가 된 것이다.[1] 광주의 참혹한 죽음과 자신의 죽음마저 장엄하게 보듬고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 투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따라서 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라는 고유명사 뒤에 남겨진 암울한 그림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가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타자화한 대상이었고, 신군부가 정권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한 역사의 희생양이었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저항한 국민저항권의 표상이었다.[2]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서 시대의 아픔을 공유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하나의 집단이 탄생하였다. 그들이 진보적 문화예술집단이다.

II. 본론

1. 민중문화예술의 등장

본 논문에서 사용된 민중문화 혹은 민중예술에서 ‘민중’의 개념은 정치, 사회적 억압의 대상이며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체이고, 역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시민으로 정의할 수 있다. 1970년대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운동 혹은 예술행위에서 사용된 ‘민중’이라는 표현은 ‘민족’이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 당시의 대표적 문화운동인 탈춤, 마당극 및 풍물패, 민족문화 혹은 민족문화 등의 용어는 국가 권력이 개입한 대중문화와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그럼에도 사회변화의 방향에서 이러한 문화운동의 확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의 문화운동과 예술은 ‘민중’이라는 말과 결합하여 민중문화운동, 민중예술 등의 표현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것은 민중이라는 표현이 변화를 향한 목표에 더 부합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사회변화의 주체가 민중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가 변할 수 없다는 인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행과정에서 문화운동가들의 활동은 항쟁을 유지하고 시민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3] 당시에 광주에서는 극단 ‘광대’, 서울에서는 ‘한두레’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맨 먼저 민중문화운동을 지향하는 조직(광주민중문화연구회, 이하 민문연)이 광주에서 만들어졌다. 민문연은 문학, 미술, 노래, 연희, 사진, 풍물, 노동문화패, 농촌문화패 등, 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집단이 모여 구성된 단체였다. 민문연은 광주항쟁 기간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들을 다양한 문화영역으로 되살리는 작업을 설립목적으로 제시하였다. 민문연이 말하는 문화운동은 각 장르의 예술행위를 의미하며, 그 주제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통해서 확인된 민중의 삶을 반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순들과의 투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운동이 문화예술운동으로 대체된 것이다. 정이담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화운동에 관한 담론이 문화운동론[4]으로 발전하면서 예술 장르별 문화예술운동의 진행과정과 지향점들이 제시되었다.[5] 채희환은 「마당극의 과제와 전망」에서 “과거의 민중연회를 어떻게 이어 받아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보다는 오늘

의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이를 민중 전통의 역사적 지속성 속에 편입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6] 이것은 현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현대 예술매체 내지 현대미학의 ‘민중적 접수’라고 말할 수 있고, 보다 넓게는 운동성의 보다 효과적인 확대, 심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쟁취되어야 할 예술성의 점진적 확보 문제이다. 이는 예술적 가치가 범사회적인 가치 속에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는 예술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전통 마당극이 갖는 풍자와 해학의 미학적 추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현실 모순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술행위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미학을 어떻게 창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인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화운동, 혹은 문화예술운동의 담론이 예술을 사회변화의 매개나 도구로만 인식하지 않고 미학적 가치를 창조하고, 미학의 창조에 민중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민중의 참여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담론은 문화의 변증법적 고찰과 함께 신식민지시대의 사회적 현실에 대해 문화운동론이 제시하고 있는 『민중문화운동실천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7]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서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현장에 대형 걸개그림이 걸리고,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개최되는 5.18정신 계승제와 망월동 묘역에서 개최되는 추모제 등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담은 노래가 제창되고 추모시가 낭송되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례가 곧 투쟁이었고, 의례의 많은 부분을 진보 예술인들이 담당했다. 당시의 문화운동은 요즘 유행하는 융복합예술 행위가 주류를 이루었다. 총체극이라는 이름으로 문학, 음악, 미술, 무용이 하나로 결합된 작품이 공연되는 형식이었다. 노래와 연극과 무용이 결합한 이른바 한국적 뮤지컬 형식의 가극(歌劇)인 신동엽 시인의 금강(錦江)은 문호근 연출로 창작 공연되었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실린 ‘뉘폴이’ 테이프가 제작되고, 테이프에 실린 7곡의 노래를 중심으로 ‘마당극’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 당시의 문화운동은 민주화를 향한 사회변화운동 그 자체였으며, 문화운동 안에 민중예술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죽음을 통한 비극의 형상화

5월의 광주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국민대장정으로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5월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불러왔고, 분신과 투신의 극단적 저항으로 이어져 마침내 6월 항쟁에 이르게 된다. 민주열사들의 희생은 매년 5월에 집중되었다. 그들의 주검도 5.18희생자들이 문헌 망월동 5.18묘역에 안장되었다. 고규태 시인은 민문연의 한 모임에서, 그 당시 상황을 “김지하의 풍자나 자살이냐가 아니라 지금은 직설이 아니면 타살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다.[8]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어버릴 것 같은 엄혹한 시대적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광주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신군부는 광주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른바 3S정책도 이 가운데 하나이다. 1980년대의 대중문화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반면에 민중문화운동은 국민의 민주화 투쟁을 독려하고 군사정권의 실체를 폭로하는 수단이었다. 대중문화 조작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민주 열사의 죽음은 가장 비장한 자기선택이었다. 죽음이 투쟁된 민중문화와 민중예술은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반인륜적 만행을 폭로하는 선전장이었다. 궁극적으로는 민주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변화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공론장이었다.

3. 현장 중심의 민중문화예술

문학은 허구이며 은유와 비유에 의한 간접화법의 산물이다. 이런 통념은 1980년대, 문학 분야의 문화운동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미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량복제가 가능한 판화가 투쟁 현장에서 깃발로 나부끼고, 강력한 시각매체 역할을 했던 걸개그림이 거리에 걸렸다.[9] 1984년 민문연이 주최한 광주문화큰잔치에 등장했던 「민중의 싸움」이 첫 걸개그림이었다. 대표적인 작품은 5.18민중항쟁 계승 8주년 기념 오월제에서 전남대학교 미술패 ‘마당’이 중앙도서관 전면에 걸었던 「오월에서 통일로」이다.[10] 홍성담의 5월 연작 판화는 1980년대의 판화를 통한 문화운동의 시작이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부정기적으로 간행했던 각종 자료집과 기관지의 표지에 홍성담, 김경주, 조진호 등의 판화가 자리하기도 하였다. 홍성담은 시민관화교실을 통

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화를 시도했으며, 민중이 직접 미술창작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문학에서는 5월시 동인들의 활동이 대표적이었다. 오월시 동인들의 시작(詩作)은 곧 변화운동에 참여하는 것이기도 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실재했던 이야기들이 시로 옮겨졌다. 1981년 출발한 오월시 동인들의 활동은 “세상을 떠난 이들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부채의식을 가진 채 폭동이라는 유언비어와 싸우는 일”이었다.[11] 오월시 동인들의 활동이 직설적이고 5월 광주의 현장을 증언하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웠다면, 전혀 다른 시각에서 광주의 시대적 상황을 시로 옮기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이것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암묵적 반영이었다. “나는 말할 수 없으므로 양식을 파괴한다”고 했던 황지우는 광주의 증언보다는 광주의 진실에 눈감은 시대 상황을 시에 담고자 했다.[12] 광주의 진실을 증언하는 일이나 광주의 진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옥중시 「학살」로 유명해진 김남주의 연작시는 광주에서 열흘 동안 자행되었던 계엄군의 만행을 파노라마처럼 묘사하였다.[13] 소설의 5.18형상화는 더 늦게 시작된다. 1988년 홍희담의 「깃발」과 최윤의 중편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에서 시작하여, 1998년 임철우의 『봄날』, 2000년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 같은 해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으로 이어져 최근에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 이르기까지, 소설에서의 5.18민주화운동은 5.18민주화운동의 체험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여러 유형의 트라우마를 소재로 하였다.

1980년대 문화운동에서 가장 크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노래패들의 활동이다. 모든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이들의 노래는 참여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더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하였다. 행진곡 풍의 운율은 시위와 집회를 이끌었고, 처연함과 비장함을 자아내게 하는 단조는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확인된 민중들의 삶을 회상하는 집단기억을 이끌어냈다. 전국의 대학마다 노래패가 시위와 집회 현장에서 활동했다. 전남대학교의 노래패 ‘친구’는 ‘광주출정가’를 비롯한 다양한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 노래들은 나중에 운동가요로 불리게 된다. 노래패는 운동가요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극을 만들기도 하고 연극과 시와 노래가 결합한 총체극을 만들어 공연하기도 했다.

마당극과는 또 다른 무대공연의 형식이었다. 연극에서도 1980년 광주의 이야기는 민중들의 현실적 삶을 확인하는 모티브가 되었다. 극단 토박이의 「금희의 오월」과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최초의 연극들로 서울 피카디리 극장에서 실시한 제1회 전국 민족극한마당에 출품되기도 하였다. 이금희 씨의 증언에 바탕을 둔 「금희의 오월」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의 마지막 항쟁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정연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암울한 상황에 처한 민중들의 정서를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14]

연극과 함께 영화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는 김태영 감독의 「칸트씨의 발표회」였다. 독립영화인들의 모임인 장산곶매가 공동 작업한 1989년의 「오, 꿈의 나라!」는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전국 150개 상영관에서 500회 이상 상영하여 10만 관객을 동원하였다.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다룬 극영화의 첫 작품은 1990년 이정국 감독의 「부활의 노래」였으며, 최윤의 소설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원작으로 한 장선우 감독의 「꽃잎」은 충무로의 제도권 영화계가 5.18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다룬 첫 작품이었다.[15] 이후에도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기획시대의 「화려한 휴가」, 「화려한 휴가」를 뮤지컬로 제작하여 서울, 광주, 동경 등지에서 공연한 메이 엔터테인먼트, 2017년 화제가 된 장훈 감독의 영화 「택시운전사」 등이 있다. 문화와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무겁지만 깊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 되어 민중들의 삶과 의식 속에 자리해 왔다. 침묵을 강요하는 시대에 침묵하지 않는 방법이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 활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사회변화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특히 이들의 활동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단절되지 않고 민중의 삶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문화예술단체의 노력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4. 무크지(MOOK)의 민중문학운동

민중문화예술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 바로 지식인들의 평론과 시론이다.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집권한 세력이 언론 통제합과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을 강제로 폐간 조치하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무크지였다. 무크지는 부정기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지식인들의 사회적 담론과 사상을 담아내기 좋았다. 무크지는 정상적인 출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980년대 문학운동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지식인들은 문화평론과 예술평론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주제를 담론으로 생산하였고, 이 평론들과 담론은 무크 문학운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집단지성의 통로가 되었다. 무크지 운동의 시작은 1980년 3월에 창간된 『실천문학』이다. 『실천문학』은 “민중의 최전선에서 새 시대의 문학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간행물(MOOK) 창간호”라는 표제어를 붙여 출간했다. 앞에서 말한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등의 계간지들이 다시 창간되기 이전까지 민중문화와 민중예술, 비평과 담론, 사회적 의제들이 무크지에 담겨져 다양한 형식으로 출간되었다. 다시 말해 민중문학은 무크지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고 지식인들의 고뇌를 담아냈다. 무크지를 통한 지식인들의 사회참여는 사회변화 운동의 질적 심화와 양적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 3세계의 운동 사례를 소개하거나 사회변화 운동 과정에서 민중문화와 민중예술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소개함으로써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지평을 확장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운동을 위한 집단지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5. 민중문화운동과 민주화운동

1981년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결혼식을 마치고 노래극 「넋풀이-빛의 결혼식」이 녹음되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여기에 삽입되었다. 1985년 5월, 민문연은 5.18민주화운동을 생생하게 재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노래패와 민문연 회원들이 참여해서 제작한 “광주여 오월이여”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의 10일을 재현한 드라마 형식이다. 서울의 민중문화운동협의회가 제작한 민중가요 테이프와 전국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 및 종교단체가 제작한 테이프들이 순차된 방송과 신문을 대체하는 사회변화 운동의 선전 매체로 자리 잡았다. 특히 광주에서 창작된 많은 노래들이 전국의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불려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외에도 「광주출정가」, 「혁명광주」, 「꽃아 꽃아」 등이 대표적으로 광주에서 창작되어 보급된 노래들이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대자보와 벽시 등이 선전매체를 대신했다. 이것은 유인물도 제대로 인쇄할 수 없

을 만큼 철저히 통제된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대자보는 5.18민주화운동의 광주에서도 시민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수단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광주지역 시인들의 활동이 벽시 운동으로 진행되었다.

민중문화운동은 민중예술의 장르와 장르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노래극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만 시와 판화가 결합하여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시판화집이 출간되기도 했다. 홍성담의 5월 연작 판화 이후에, 광주미술인들의 판화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훗날 광주미술인공동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민중미술 활동을 하는데, 광주에서 활동하던 젊은 판화가들인 김경주와 조진호가 5월시 동인들과 함께 5월시 판화전을 카페 메아트르 ‘꼬두메’에서 열었다. 홍성담은 천주교광주대교구와 함께 시민판화교실을 열어 판화를 통한 대중과의 만남을 시도하였다. 이 행사는 광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을 순회하였고, 곳곳에서 정보기관과 마찰이 빚기도 하였다.

이렇듯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천착하고, 민중들의 자각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판화가들의 노력에 대해 대학 탈패 출신으로 당시 신문기자였던 김선출은, “판화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시도했고, 모순의 현실에서 신명어린 민중상을 찾는 당대의 투쟁에 미술을 도구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16] 민중문화운동은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의 투쟁을 독려했고 진실에 목마른 민중에게는 사실을 알리며 변화를 이끌어 왔다. 정보의 통제와 조작으로 소비적이고 향락적인 대중문화를 강요하는 권력과 권력에 충성하는 사회구조에 맞선 민중문화운동은 창작과정에서도 민중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중들이 현실자각과 변화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변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역사의 진정한 주체가 민중이며 민중의 잠재된 변화 의지가 말로 가장 확실한 사회변화의 대안이고 희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실천한 것이 민중문화운동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광주의 민중문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했던 공간이 있다. 카페 메아트르 ‘꼬두메’라는 소극장은 전시장을 겸비한 레스토랑이었다. 당시 민중문화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던 사람이 운영하던 이 식당은 밤이면 민중문화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민주화운동 단체에 몸담고 있던 활

동가들이 찾아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울분을 토로했던 곳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어느 자리에선가 노래가 시작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시가 낭송되고, 그러다 오월의 노래로 목청을 돋우고 나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다. 이곳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곳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다양한 시대적 담론들이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6. 정치적 담론 기제로서의 민중문화운동

1980년대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은 복잡하지 않았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5.18민주화운동은 민주대 반민주의 대립 구도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대립 세력의 형성도 단순하고 명료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정치적 담론에 대한 민중문화운동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1980년대 한국사회에는 신군부의 불법적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억압에 순응하는 세력과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의 억압에 맞서야 한다는 세력이 있었다. 1980년대는, 적어도 6월 항쟁 이전까지는 5.18 이슈가 모든 담론을 블랙홀처럼 흡수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사회변화를 주도한 민중문화와 민중예술이 민중들의 자각과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준 담론 형성을 주도했다는 것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화를 향해 더 나아가려는 진영과 정권 유지를 위해 버티는 세력들 간의 상호작용, 그들을 바라보는 민중들의 정치적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치적 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1980년대의 사회 갈등은 민주와 반민주의 정치적 지형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부르짖고 부당한 정권의 퇴진을 외치다가 희생당한 민중이 등장하였다. 5월이면 신군부 세력들이 광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지를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도 있었다. 물론 신군부세력은 이러한 민중의 외침을 철저하게 탄압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민군들처럼 분신과 투신의 극단적 투쟁이 아니면 ‘나’를 포함한 누구도 그들의 희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자각에서

목숨까지 내던지게 만들었던 시대가 1980년대였다. 그런 자각이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인되면서 민중들은 사회변화 운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6월 민주항쟁은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담론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주체, 혹은 민중주체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민중문화운동의 정치적 담론과 사회적 변화의 주체적 담론의 기제로서[17] 민중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게 하는 역사의 주체로 민중을 인식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동안에 민중문화운동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했다. 문화예술은 관념적 미학이나 전시관의 조명에서 벗어나 민중들의 삶과 함께 해야 했다. 광주의 죽음에 이은 또 다른 죽음이 사회에 던지는 충격들로부터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민중문화운동가들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을 떠나보내는 장례의식을 민중문화운동가들이 담당해야 할 몫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비장함과 치열함이 민중의 이름을 붙인 문화와 예술로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규태 시인은 “직설이 아니면 타살의 시대”라고 말했고, 「광주출정가」의 노랫말에 그 걱정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성찰과 민중예술의 미학적 고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치열한 운동과 함께 채희완, 임진택, 정이담, 백원담, 박영정 등은 민중문화운동을 주체로 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문화예술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한마당, 1991), 『문화운동론』(공동체, 1985) 등의 단행본을 발행하였고, 민중문화운동 단체의 기관지 및 여러 잡지에 많은 시론과 평론을 남기기도 하였다.

정해구 교수는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1987년 6월 항쟁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광주항쟁 이후에 민주화운동 주체들의 사회과학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급진주의적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항쟁 이후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일부가 급진적 경향을 추구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민주화운동의 주된 흐름은 온건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다.[18] 이러한 분석은 1987년 6월 항쟁 이전의 현실과 6월 항쟁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 이행과정을 체험한 세대의 인식을 다르기 때문이다. 30여년의 시간

이 경과한 지금, 1980년대의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 행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걱정의 시대를 온 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과 조건, 민중문화운동 주체들의 감성적 기저를 포함한 대내외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고자 몸부림쳐 온 민중문화운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미래의 문화운동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광주민주화운동이 아시아 국가의 인권운동에 미친 영향

광주민중문화운동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과정에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1991년 스리랑카에서는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 행사와 함께 홍성담의 5월 연작 관화전시회가 개최되었다. 광주의 민중문화운동은 스리랑카의 실종자 가족들에게 광주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리랑카에서도 노동조건을 개선할 외치다가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피해자가 많았다. 국가폭력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던 스리랑카 실종자 가족들은 광주의 영향을 받아서 정부와 투쟁할 수 있었고, 국제사회에 국가폭력의 실체를 알리는데 공헌하여 5월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19] 5월 인권상으로 광주와 인연을 맺은 동티모르의 초대대통령 사나나 구스마오도 동티모르 독립투쟁 과정에서 광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실제 구스마오 대통령은 광주를 동티모르 국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국에 학교를 세우는 계획도 추진했었다.[20] 이외에도 태국과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지의 희생자 가족 모임도 해마다 광주에서 생산되는 5.18관련 기념품과 광주민중문화운동 단체들이 제작한 테이프 등을 가져다 광주의 투쟁을 자국에서 재현하려고 하였다. 민중문화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이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과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제도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민중문화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민중문화와 민중예술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8. 광주비엔날레와 안티비엔날레, 그리고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민중문화운동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이 한발 앞선 변화를 통해서 민중들의 공포감을 감소시켜주었을 지도 모른다. 장례를 비롯한 추모의례에서 부른 단조의 비장감과 시위현장과 집회에서 부른 행진곡풍의 가요는 ‘내가 서 있는 곳’이야말로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오도되고 고향을 떠난 도시노동자들이 겪는 사회적 모순을 어렵지 않은 언어로 질타하는 시 작품을 읽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음을 확인하기도 했을 것이다. 성조기를 찢어 만든 대형 걸개 그림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고, 연극 ‘금회의 오월’에서는 정연이 오빠와 동생 금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이웃의 이야기임을 확인하고 무대와 관객의 거리감을 좁혔을 것이다. 민중문화운동과 민중예술인들의 활동은 이렇게 민중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로 묶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민중들이 1987년 마침내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8년, 광주의 민중문화운동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광주비엔날레이다. 광주비엔날레는 1994년 설립준비위원회와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1995년 9월에 첫 번째 비엔날레가 열렸다.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하였다. 전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전시 행사’를 전문 인력보다는 행정 인력들이 주도하는 상황이었다.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었고 광주의 도시 정체성과 역사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전시 주제를 비롯한 모든 기획이 진행되었다. 광주미술인공동체(이하 광미공)는 광주비엔날레 참여를 거부하고 별도의 비엔날레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광미공은 전국의 민주인사들을 참여시켜 통일미술제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망월동 5.18묘역을 전시공간으로 결정했다. 정병근 통일미술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사의 취지를 묻는 질문에, “전국의 뜻 있는 민족문화예술인들이 광주비엔날레의 파행성을 고발하고, 민족미술의 진로를 역동적으로 개척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21]고 대답했다. 19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대작으로 형상화한 강연균 화백을 중심으로 기획한 장승과

시대, 그리고 당시에 산화한 영령을 위로하는 1천 2백 여 장의 만장이 망월동 묘역에 이르는 길 양옆에 세워졌다. 전국의 민족 미술인들의 개인 작품과 공동 걸개그림, 판화와 조각들로 망월동 5.18묘역이 북적거렸다. 전시 기간 동안 연인원 2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된 안티비엔날레로서의 통일미술제는 2회부터는 안티라는 표현 대신에 프레비엔날레로 이름이 바뀌었고, 3회부터는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에 흡수되었다. 제도권으로 흡수되는 순간부터 통일미술제의 기획 의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광미공은 내부의 입장 차이로 해체되었다.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민중문화예술인들이 제도권에 참여하는 문제와 제도권에 들어온 민중문화예술인들의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운동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방향과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고 작가가 추구하는 미학적 가치와 작가로서의 자기정체성도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술가들의 활동이 제도권으로 흡수되면 자본의 종속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작가의 가치가 바뀌더라도 종속성에 의한 것이라면 자기부정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법은 제도권의 구조를 바꾸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민주대반민주의 대립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갈등의 원인과 구조가 다양해진 상황에서는 자본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의 구조에 순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전 근대적 방식이다. 민중문화예술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그 성과를 제도권에서 수용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민중문화예술인 역시 부단한 자기개발과 성찰로 민중들의 삶을 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민중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이다. 우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정치적 산물이다.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조성위원의 한사람인 왕치선은 2016년 9월에 개최된 문화예술인 5차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본질적으로 문화계의 성장과 문화 향유자에 대한 실증적 예측이 전제되지 못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점은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까지 콘텐츠 확보와 관객 유치는 만족스러울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

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정보교류와 문화정보의 확산을 통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고자 했던 노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나아가 아시아의 문화를 한국이 발굴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광주가 아시아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의도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22] 조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의 건립 및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미 개원해서 운영에 들어갔지만 전당은 그 위치 선정에서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옛 전남도청 일원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 공간이며, 그 주변이 대부분 5.18사적지에 해당한다. 비록 사업의 출발이 5.18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광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도시라는 점이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굳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에 전당을 건립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부지가 결정된 후에도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확정된 설계를 두고도 1년 이상을 허비하였다. 랜드마크 논쟁이 그렇다. 우규승 설계자는 옛 전남도청 건물이 5.18사적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전당의 모든 건물을 지하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전당을 지상에 세워서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어났다.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1년여를 끌다가 결국 원래의 설계안대로 건립하는데 합의했지만, 이제는 옛 전남도청의 별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곳도 5.18사적지인데 그곳을 허물어 전당의 출입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설계안을 뒤늦게 확인한 5.18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5월의 문이라는 절충안을 만들어 광주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문화부장관과 협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전당은 개관되었지만 전당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상징 공간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증언해야 할 옛 전남도청 일원의 전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비 5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불협화음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갈등의 조정과 불협화음의 중재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중문화예술인들도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중문화운동 주체들의 현실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앞세우고, 광주 학살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온몸으로 느껴온 민중문화예술인들의 침묵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광주비엔날레처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시 민중문화예술인들에게는 낮은 공간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세 번째는, 5.18민주화운동 기념물과 내용물이다. 광주에는 옛 전남도청 주변에 도청 본관과 별관, 상무관, 5.18민주광장 등이 5.18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다. 상무지구에는 옛 상무대 영창과 법정을 재현해 놓은 공간과 함께 5.18자유공원이 있다. 시청 앞에는 5.18기념관을 비롯한 기념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 5.18민주묘지에는 추모관, 지금은 민족민주열사묘역으로 불리는 망월동 5.18구묘역에는 민족민주열사추모관이 있다. 이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총 29 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 모든 공간과 시설에서 광주의 5월을 보듬고 살아 온 광주 민중문화예술인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물론 5.18단체가 폐쇄적이고 행정기관과 함께 당사자주의로 일관해 온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5.18기념사업에서 5.18정신을 형상화하고 진실을 담아내는 작업에 이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상의 세 가지 사례는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민중문화예술인들의 가치지향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제였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제는 갈등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부족한 민중문화예술인들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5.18기념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스스로 외면했던 민중문화예술인들에게 광주민주화운동의 가치는 무엇인가? 자문해 볼 것을 요구한다. 민중문화예술인들의 가치지향성과 정체성의 확인은 사회변화 운동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정치성, 그리고 가치지향의 중심에 어떤 역사적 기준과 철학적 가치를 내세울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결론

문화에 대한 개념은 그 폭이 너무 넓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문화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사건에서 시작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사회변화 과정에서 치열하게 참여했던 문화예술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중

문화운동과 민중예술이 한국사회의 변화에 기여한 바는 충분히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의 가치가 민주, 인권, 평화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고 국가 기념일로 제정될 만큼 제도적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민중문화예술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 문화가 그 시대의 역사를 주도하는 민중들의 의식과 삶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민중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은 민중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민중들의 내재된 희망을 형상화하고 그 희망에서 미학적 가치와 지속적인 사회변화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민중문화예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이라는 말이 진부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남희 UCLA교수는 “민중이라는 단어가 주는 힘, 호소력, 정서는 70~80년대 산물이니까 진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민중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국사회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문화다. 한국 지식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중 개념을 형성하고, 이 내용에 부합하는 다양한 저항적 시도를 해 왔다”고 말했다.[23] ‘민중’이라는 개념이 ‘시민’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남희 교수는 ‘민중’이라는 개념 안에 이미 과거의 역사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민중은 광장의 주인, 역사의 주체로 자리 잡은 문화적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한 시민으로 민중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민중의 삶은 여전히 민중문화예술이 천착해야 할 주제이고 문화예술이 지향해야 할 궁극의 가치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민은 광주 희생자들에게, 타 지역의 시민들은 ‘광주’라는 도시에 윤리적 부채감을 느꼈다.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소명을 희생자들이 대신했다는 인식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원천적 에너지가 되었다.[24] 광주의 민중문화운동은 광주시민들 개개인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그들의 기억을 민중에게 알리는데 필요한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고 창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행했던 기억, 너무나 충격적인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기억은 그대로 남아 있지 않고 물리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똑 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도 어떤 때는 영웅적으로, 어떤 때는 트라우마로 드러나기도 한다. 1980년 이후의 민중문화운동은 기억투쟁이었다. 그것은 개인의 기억을 개인에게 묶어두지 않고 공유하기 위한 연대의

과정이었다. 개인의 기억은 불행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집단기억은 저항의 힘이 되고 연대의 매개가 되기 때문이다.

References

- [1] Jeong keun Sik, Festivals, democracy, region's revitalization, Segil publisher, 2010
- [2] Choi Jeong Woon, Social sciences on May, Pulbit publishing house. 1997
- [3] Gwangju popular culture research center, Gwangju culture, vol.2, 1985
- [4][6] Jeong Yi Dam, Theory on cultural movements, Gongdongchai, 1985
- [5] Jeong Yi Dam, The literary campaign statistics and prospects, Hanmadang, 1991
- [7] Kim Jeong Hwan, Baek Won Dam(translator), Popular culture series and practice, Hwada, 1984
- [8] Heo Yeon Sik, You overcome the age of murders by song of the frankness, Gwangju people, June 17th, 2013
- [9] Im Jong Yeong, Honam Culture Research, vol.57, Cheonnam Univ. Honam Culture Research Center
- [10][15] Jeong Myong Jung, The cultural movement of May in Gwangju, Asia culture, Asia Culture Community, May, 2015
- [11] Lee Seung Cheol, Literature forum on May for establishing history of literature, 5.18 Recording center, May 19th, 2018
- [12] Hwang Ji Woo, The Birds also die, Culture and Intellect: 1983
- [13] Kim Nam Ju, Collection of Poems, Massacres, Hanmadang Siseon 2, 1990
- [14] Lee Keum Hee, The record and testimony of the 5.18 popular revolt-Mudeung flag, Nampoong, 1987
- [16] Kim Seon Chul, The May cultural arts—from origins to the 5.18 commemoration branch, Sengmul Publishing House, 2001
- [17] Kim Kwang Eok, Political discussion on democratization movement, Korea cultural anthropology, vol. 21, 1989
- [18] Jeong Hae Gu,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June Protest movement Commemoration, Memory and Prospect, Winter, 2006
- [19][20] The official internet homepage of 5.18 commemoration foundation, www.518.org
- [21] Newspaper, The Chungbuk University newspapers, October 2nd, 1995

- [22] Wang Chi sun, Grand Artist, The 5th literary seminar (www.blog.naver.com. korean people), September 26th, 2016
- [23] Lee Nam Hee, Interviews, Kyonghyang Newspapers, July 28th, 2015
- [24] Jeong Geun Sik, Condition of Memory in Gwangju, Korea and Germany city exchange program, 2017

* This paper was written with funding assistance from Chosun university.
--